

2021,

북티즌을 기억하다



북티즌독서토론회

목 차

목 차	1
2021년, 북티즌을 기억하다	3
2021년을 기억하며	3
1부 2021년 토론 자료	4
토론회 일정 및 도서	4
월별 토론자료	5
2021.1월	5
작가소개	5
책소개	5
토론	6
2021.2월	7
작가연구 -먼 멜빌	7
이 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7
토의 및 토론	8
2021.3월	11
2021.4월	12
토론내용	12
2021.5월	13
작가 소개	13
토론 도서 소개	14
작품 소개	15
다른작품 소개	16
작가의 작품세계	16
작가 종교관	17
회원 선정 시편	17
토론 주제	17
2021.6월	18
저자소개: 앤디 위어	18
요약	18
토론 주제	19
2021.7월	20
작가연구	20
이 책의 사회적 평가	20
책 속 토론	21
2021.9월	27
토론주제	27
2021.10월	28
토론주제	28
2021.11월	29

작가소개	29
책소개	29
줄거리	29
토론	30
2부 글쓰기 특강	31
특강 개요	31
강사 소개	31
강의 계획	31
관련사진	32
3부 우리의 창작	33
윤인자作品集	33
풍경이 울었다	33
코로나 19 - 윤인자	33
최옥연作品集	34
파도	34
그리운 얼굴들	34
재회	35
4부 북티즌 발전방향 설문 결과	36
5부 북티즌 나눔책방 운영	43
나눔책방 운영	43
기증 도서 접수 내역	43
에필로그	44

2021년, 북티즌을 기억하다

2021년을 기억하며

- 윤현아 회장 -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3년차 접어들었고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크게 바뀌었다. 여행·외식·문화 등의 외부활동의 자유가 줄었으며, 친구나 친척간의 만남·대화도 축소되었다.

북티즌토론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에는 3번, 2021년에는 10번이 비대면 토론이었다. 대면토론 보다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고, 원활한 토론을 하기엔 한계가 많았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 정을 나누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 또한 매년 진행했던 '책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도 중단되었다

북티즌 나이가 어느덧 40이 되었다. 불혹의 나이라는데 우리는 얼마나 단단해졌는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40여 년의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바라본다. 우리에게 북티즌은 무엇이었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자 '새 북티즌 지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는 아직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도약할 것이다. 익숙한 것에 낯선 것을 더해 새로움을 만드는 것. 북티즌은 지금까지 그래왔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을 찾아 노력했다. 그랬기에 40년을 유지해온 것이다. 「2021.북티즌을 기억하다」를 통해 북티즌의 오늘과 내일은 40년에서 400년으로 이어질 것이다. 2022.1.19.

1부 2021년 토론 자료

토론회 일정 및 도서

일자	제목	저자	출판사	추천자	장소	회차
1월12일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문학동네	윤인자	zoom토론	465회
2월9일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문학동네	김선희	zoom토론	466회
3월9일	나는 흥범도	송은일	바틀비	정종모	zoom토론	467회
4월13일	융의 영혼의 지도	머니 스타인	문예	최은서	zoom토론	468회
5월11일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정호승	비채	이기상	zoom토론	469회
6월8일	마션	앤디 위어	알에이치코리아	윤현아	zoom토론	470회
7월13일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사사키 아타루	자음과모음	김선희	zoom토론	471회
8월10일	새로운 가난이 온다	김만권	혜다	이영옥	zoom토론	472회
9월14일	기분이 없는 기분	구정인	창비	최옥연	zoom토론	473회
10월12일	달려구트 꿈 백화점	이미예	팩토리나인	최은서	모인빌·zoom융합토론	474회
11월9일	아버지에게 갔었어	신경숙	창비	윤인자	모인빌	475회
12월14일	각자 도서 선정하여 읽기			모든회원	줌토론	476회

월별 토론자료

2021.1월

- 일시: 2021. 1. 12.
- 도서명: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 지은이:마리오 바르가스요사
- 주재자: 윤인자

작가소개

마리오 바르가스요사(1936~) 2010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페루 출신의 스페인 작가이다.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참여도 활발하여 갖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청년시절에는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을 열렬히 지지했지만 이후 자유시장주의자로 전향, 페루 대선에도 출마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주제와 라틴아메리카의 복잡한

역사, 그리고 개인의 은밀한 성적 욕망을 두루 다루는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1952년 16세의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 1963년 레온시도 프라도 군사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개들(La Ciudad y los Perros)』을 발표하며 주목받는 작가로 떠올랐고, 1966년 출간한 『녹색의 집』으로 페루 국가 소설상, 스페인 비평상, 로물로 가예고스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5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던 그는 볼리비아와 칠레, 페루 사이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반부패 투쟁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중도우파 후보로 1990년 페루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알베르토 후지모리에게 패해 낙선했다. 그 충격으로 1993년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다.

1994년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세르반테스상을 수상했고, 옥스퍼드, 예일, 하버드 등 세계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미국의 '포린 폴리시'와 영국의 '프로스펙스'가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100명'에 선정된 바르가스요사는 사실적인 표현방식, 빠른 사건 전개, 치밀한 구성, 그리고 날카로운 위트와 재치, 풍부한 상상력, 짙은 휴머니즘 정신에 의한 공감과 감동으로 그 세계성을 인정받았다. 권력의 구조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개인의 저항과, 투쟁, 패배 등을 통렬하게 묘사해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지식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책소개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거장이며, 201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대표작으로, 그가 이전에 발표한 대표작들과 달리 작품에 '유머' 요소를 사용하면서 작가의 문학과 글쓰기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페루 국경 아마존 지역에 주둔하는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해 페루 군부가 창설한 '특별봉사대'를 소재로 삼은

이 소설은 독특한 구성과 넘치는 유머, 그리고 신랄한 풍자를 통해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그린 익살극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양하고 독특하면서도 현실적인 인물을 소설 곳곳에 배치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유머가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치적인 풍자의 내용도 담고 있다. 속은 부패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청교도 같은 행동을 보이는 페루 군부를 조롱하면서, 국가가 처한 급박한 문제를 얼마나 황당한 방법으로 해결 혹은 무마하려고 하는지를 다소 과장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을 사용해 짜임새 있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유머와 풍자, 사회 비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소를 두루 담고 있다. 줄거리 뛰어난 복무 성적, 탁월한 임무 수행 능력으로 상사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모범 장교 판탈레온 판토하는 대위로 진급한 후 페루의 아마존 밀림 지역인 이키토스로 발령받는다. 그곳에서 판토하 대위에게 부여된 임무는 바로 아마존 지역의 병사들을 위한 ‘특별봉사대’를 창설하라는 것.

아마존의 고립된 군부대에 복무하는 병사들이 섹스에 굶주린 나머지 인근 마을 여자들을 겁탈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면서 지역주민의 분노와 원성을 사게 되자, 페루 군부의 고위층은

자구책으로 ‘수비대와 국경 및 인근 초소를 위한 특별봉사대(줄여서 수국초특)’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창녀를 고용하여 병사들의 성욕을 달래는 묘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판토하 대위에게 부여된 임무의 정체였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임무이기에 판토하 대위는 민간인들처럼 살아야 하며 다른 군인들과 만남이 금지되고, 심지어 함께 사는 아내와 어머니에게도 비밀 임무의 성격을 밝혀서는 안 된다. 그 누구보다 모범적이고 원칙을 지키며 고지식하게 살아온 ‘바른 생활 사나이’ 판토하 대위는 이 기괴한 임무에 매우 당황해하며 거부하려 하지만, 결국 상부의 명령에 따라 ‘수국초특’을 조직하게 된다.

너무나 어이없는 작전이기에 군 고위층에서도 그 성공에 대해 의심을 가득 품는데, 판탈레온 판토하 대위는 특유의 치밀함으로 수국초특을 아주 훌륭하게 조직, 운영하며 상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놓는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 임무에 완전히 빠져들어, 심지어 봉사대원 중 한 명인 ‘미스 브라질’을 애인으로 삼으면서 아내를 배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비밀리에 운영되던 특별봉사대의 정체가 주민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지고, 주민들은 그것을 군부가 조직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판탈레온을 ‘포주’로 여기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특별봉사대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판토하 대위의 애인 ‘미스 브라질’이 이키토스 주민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판탈레온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살해당한 그녀에게 예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 때문에 특별봉사대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군 고위층은 자신들이 고안한 조직이면서도 특별봉사대가 비난을 받게 되자 ‘조직을 너무도 정교하고 훌륭하게 만든’ 판토하 대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 상관들의 압력으로 기지는 폐쇄되고 판토하 대위는 티티카카 호수의 수비대로 파견된다.

토론

1. 유머코드- 유머러스 씩씩하면서 공감

2. 스토리- 목직한 문제의식
3. 광기-규칙- 이성-질서의 극단
4. 비이성-종교적 믿음의극단
5. 비밀 - 군부. 종교 성

2021.2월

- 토론날짜 :2021. 2. 9일 오후 8시 (zoom)
- 도서명: 필경사 바틀비
- 작가/그림이/옮긴이: 허먼 멜빌/하비에르 사발라/공진호
- 출판사 : 문학동네
- 주제 :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현대인
- 주재자 : 김선희

작가연구 -허먼 멜빌

허먼 멜빌(Herman Melville, 1819년 8월 1일 ~ 1891년 9월 28일)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며 시인이다.

그의 최고 걸작인 《백경》(모비 딕)이 사후 수년이 흐른 후 "재발견"되어, 현재 그는 미국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존중받고 있다. 작품으로는 《피에르, 혹은 모호함》, 《빌리 버드》, 《타이피》, 《오무》, 《마디》, 《흰 재킷》 등이 있다.

이 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853년. 아직 인쇄기술이 없을 때입니다.

인쇄기계 대신에 사람의 인력을 사용해야 했던 시기.

종이와 펜.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는 사람.

"글을 베끼는 이, 필경사"

필경사는 직업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바틀비의 삶에 대해 그는 말하고 있다. 우선 작가 허먼 멜빌은 1819년, 미국 뉴욕에서 부유한 무역상 집안의 8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근대적 합리성을 거부하는 비판적 사고, 풍부한 상징성을 작품에 담았던 그는 다음 세기에 와서야 단순한 해양모험담 작가가 아닌 친구 호손과 더불어 인간과 인생에 비극적 통찰을 한 상징주의 철학적 작가로 평가받게 되었다. 필경사 바틀비는 그가 34살에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결국 여기서 작가는 바틀비의 삶을 통해 미국의 금융 중심지 뉴욕 월가를 배경으로 산업화, 도시화된 미국 자본주의 사회와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간략히 집약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의 모습을 단순히 보여준다고 해도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전 세계를 통틀어-에서는 이러한 인물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틀비는 직장에서 하기 싫은 일을 거부한다. 상사에게 확고히,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싶다고 말한다. 반면에 바틀비는 자신이 막상 '하고'싶은 것도 없다. 창백한 얼굴의 그는 수동적 저항으로서 자신에게 할당된 필경의 일만 묵묵히 한다. 화자는 상황이 지남에 따라 "바틀비는 나 같은 범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전지한 섭리의 어떤 신비한 목적을 위해 내게 할당되었다는 믿음에 빠져들었다.(p87)"고 말한다. 화자를 이렇게 만드는 바틀비의 힘은 무엇일까? 그는 전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도, 교훈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도, 심지어 영웅도 아니다. 차라리 그는 일반인보다 무기력하다. 하지만 그는 현대사회에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힘을 얻는다. 불합리한 일들을 하루하루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깨닫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 나는 사회봉사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안규철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라는 전시가 있다. 한번은 거기에서 전시안내를 맡았다. 특히 내가 맡은 곳은 바로 <1000명의 책>이라는 전시공간이었는데 이는 전시기간 동안 천여 명의 관객이 국내외 문학작품을 연이어 필사하는 필경작업이었다. 웹사이트를 통해 일정을 예약한 참가자들은 ‘필경사의 방’에 마련된 책상에서 각자 1시간씩 주어진 책을 필사한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손 글씨로 완성된 필사본은 전시가 끝난 뒤 한정판으로 복제되어 참가자들에게 배포된다고 한다. 지나간 시대의 유물처럼 밀려나 버린, 손으로 글 쓰는 행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모르는 익명의 개인들이 공동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연대를 이루는 작업이라고 했다.

필경사 바틀비와 너무도 대조적인 듯하다. 물론 시대의 차이도 있고 ‘필경’에 대한 목적도 다르다고 하지만 공통된 질문은 있는 듯하다. 전시관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글씨를 베껴 쓸까? 초반엔 단지 좋은 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필경이라는 의미를 포장만 한 전시가 아닌지 말이다. 바틀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필경에 대해 너무 가볍게 접근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도 모른 채, 돌아가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승인한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작가는 바틀비를 통해 질문하고 있다.

-아트인사이트-

토의 및 토론

어느 날 아침, 한 젊은이가 내가 낸 광고를 보고 찾아와 사무실 문턱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여름이라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창백하리만치 말쑥하고, 가련하리만치 점잖고, 구제불능으로 쓸쓸한 그 모습이! 그가 바틀비였다.-25쪽

바틀비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쑥한 모습의 현대인과 자신의 감정을 즉시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 안에서 구제불능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바틀비는 처음에는 놀라운 분량을 필사했다. 마치 오랫동안 필사에 굶주린 것처럼 문서로 실컷 배를 채우는 듯했다. 소화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법도 없었다 낮에는 햇빛 아래, 밤에는 촛불을 밝히고 계속 필사했다. 그가 쾌활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했다면 나는 그의 근면함에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창백하게, 기계적으로 필사했다.-27쪽

●

●

그 자세로 앉아, 나는 그를 부르며 용건이무엇인지 빠르게 말해주었다. 나와 함께 적은 양의 문서를 검증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틀비가 그의 은둔처에서 나오지 않고 매우 상냥하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니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29쪽

-
-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는 식사하러 나가는 일이 없었다. 사실 그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그때까지 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 그는 구성의 영원한 초병이었다 -37쪽

-
-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바틀비에 대해 적잖게 마음이 풀렸다. 그의 안전성, 어떤 유희도 즐기지 않는 점, 부단한 근면, 놀라운 침묵,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몸가짐 때문에 그는 내가 획득한 귀중한 인물이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가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것, 아침에 제일 먼저 와 있고, 하루 종일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밤에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내게는 그의 정직함에 대한 남다른 신뢰가 있었다. 매우 중요한 문서가 그의 손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놓였다. 물론 때로는 내 영혼을 걸어야한다 해도 돌연 그에 대한 발작적 분노가 이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내 사무실에 머물면서 바틀비 자신이 정한 암묵적인 조건들, 이 조건들을 이루는 모든 괴벽, 특권, 전례가 없는 의무의 면제 등을 항상 염두에 두기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43쪽

-
-

“있어보니 이 사무실에서는 시청이 너무 멀어, 공기도 좋지 않고, 요컨대 다음 주에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야. 그리고 자네의 품은 더이상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가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지금 말해두는 것이네.”

-75쪽

-
-

몸은 이상하게 벽 밑에 움크리고 무릎은 끌어안고 모로 누워 차가운 돌에 머리를 대고 있는 쇠약한 바틀비가 보였다. 그러나 움직임 전혀 없었다. 나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몸을 굽혀보니 그는 멍하니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깊이 잠들어 있는 듯했다. 무언가가 그를 건드리도록 부추켰다, 나는 그의 손을 만졌다. 그 순간 찌릿한 전율이 내 팔을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

-90쪽

-
-

북티즌

- 0. 서 지 : 『나는 홍범도』, 송은일, 도서출판 바들비, 2020.08.15. 초판 1쇄
- 0. 주재자 : 정종모
- 0. 토 론 : 2021.03.09.(화) 20:00 / zoom 화상 토론

올해는 3·1운동(3·1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02주년 되는 해이고 2020년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나는 홍범도』는 2020년 8월 15일 출간되었다.

어린 나이에 머슴살이를 한 아버지 홍윤식은 흥경래와 가까운 일가였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농민이었다. 홍범도의 어머니는 고아로 외가에서 자라다가 혼인했다. 홍범도가 태어날 때 영양실조에 걸린 그의 어머니는 산고로 죽었다. 아홉 살 때 그의 아버지마저 죽었다.

홍범도는 1868년 8월 27일 평남 양덕(陽德)에서 태어났고 1943년 10월 25일 75세의 나이로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순국하였다.<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아홉 살부터 머슴살이를 시작해 평양진위대 군인 사병(소년 나팔수), 조지소(造紙所) 머슴살이 노동자, 광산노동자, 승려, 산포수 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의병장이 되어 항일무장독립투쟁에 나선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 「대한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역사적 평가도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나는 홍범도』 장편소설을 통해 그의 생애와 의병 및 독립군 활동의 대강을 가능할 수 있었다. 소설 제목은 그의 별명 비장군(飛將軍, 용맹한 장수 또는 명장에게 붙이는 별명)에서 따온 것으로 짐작된다. 소설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소설에서 다루지 않은 연해주 등지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면, 홍범도는 레닌의 볼셰비키당 당원으로 레닌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여 극동인민대표회의에 김규식, 여운형 등과 함께 한국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고 집단농장 관리인, 고려인 극장 경비원으로 초라한 만년을 보내기도 했다.

1962년 3·1절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하여 기렸고 그의 부인 단양 이씨와 장남 홍양순은 2021년 3월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

* 크질오르다에서 만년의 홍범도에 대하여 기록한 예술가 진창화의 회고담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홍범도는 73세의 나이로 정규군으로 참전을 자원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싸울 힘과 유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병들이 군사훈련을 받는 사격장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25m 떨어진 거리에서 5코페이카(러시아 화폐 1 루블은 100 코페이카 / 동전 1, 5, 10, 50 코페이카, 1, 2, 5, 10 루블) 짜리 동전을 명중시켰다고 한다.

- 0. 이 소설을 읽은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와 그 이유는?
- 0. 인간 홍범도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또는 신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0. 국권회복을 위해 싸우다가 이롭도 남김없이 스러진 영웅(민초)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 0. 누구나 토론 주제 한 가지를 내놓아 보자.

2021.4월

- 일시 : 2021.4.13
- 장소 : 줌
- 도서명 : 융의 영혼의 지도
- 작가 : 머리 스타인
- 주재 : 최은서

토론내용

1. 융의 학설에 공감 하시나요?
2. 공감하신다면
3. 본인의 정신세계에 대비해서
4. 본인의 페르소나를 분석 해 보실까요? (사회가 요구하는 집단의 인물에 맞춰 행동하는 나와 개인이 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에 기인하는 나의 페르소나)
5. 제일 마음에 와 닿은 장은?(이유 설명)
6.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북티즌님들께 묻기
7. 이 책을 읽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지요?

2021.5월

- 일 시 : 2021.5.13(화) 19:00
- 장 소 : 모인빌
- 도 서 :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 작 가 : 정호승
- 출판사 : 비채
- 주제 : 이기상

작가 소개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중학교 1학년(62년) 때 은행에 다니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도시 변두리에서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고, 전국고교문예 현상모집에서 “고교문예의 성찰”이라는 평론으로 당선되어 문예장학금을 지급하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68년 입학)를 들어가게 되었으며, 같은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가 당선되어 시인이 되었으며,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가 당선되어 소설가로도 등단하였다.

슬픔이 담겨있는 시문을 짓는다고 하여서 문학계에서는 '슬픔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다.

<시집>

- 1979년 《슬픔이 기쁨에게》 (창작과 비평사)
- 1982년 《서울의 예수》 (민음사)
- 1987년 《새벽편지》 (민음사)
- 1990년 《별들은 따뜻하다》
- 1991년 《흔들리지 않는 갈대》 (미래사)
- 1997년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 1998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열림원)
- 1999년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 2003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열림원)
- 2004년 《이 짧은 시간 동안》 (창비)
- 2007년 《포옹》 (창비)
- 2010년 《밥값》 (창비)
- 2013년 《여행》 (창비)
- 2014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신개정판)(열림원)
- 2015년 《수선화에게》 (비채)
- 2017년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기타>

소 설 |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동 화 | 연인, 에밀레종의 슬픔

산문집 |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2006년),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2013년)

토론 도서 소개

-이모작 뉴스 -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사랑을 전하는 시인, 사랑과 고통의 본질을 찾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앞서 말한 수식어들의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인생의 고비마다 시를 쓰고 고백하는 뜨거운 기도에 가깝다.

정호승 시인은 시와 산문이 자신의 문학을 이루는 ‘한 몸’이기에 시와 산문이 한 몸인 책을 소망해왔다고 고백한다.

시인의 오랜 소망으로 쓰인 이 책은 직접 가려 뽑은 시와 그 시에 얽힌 이야기를 쓴 산문이 짝을 이룬 ‘시가 있는 산문집’으로, 모두 60편이 실려 있다. 어린 시절의 사진부터 군 복무 시절의 사진, 부모님과의 한때, 존경하는 스승님과 찍은 사진 등 소중히 간직해온 시인의 사진들이 20여 컷 함께 실렸다.

책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자.

- ▶ 시는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고, 상처와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며,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인생이 외로움과 상처와 고통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듯 시 또한 마찬가지다.
- ▶ 독자들이 시집에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은 ‘외로우니까 사람입니다’이다. 그렇게 쓸 때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언제나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 ▶ 나는 사막의 모래 한 알보다 못한 존재다. 나도 선한 눈을 지니고 사막을 건너가는 야생 낙타가 되고 싶다.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굳게 믿으며, 사막의 물이 되면 더 좋겠다. 젊을 때는 산을 바라보아야 하고, 나이가 들면 사막을 바라보아야 한다.
- ▶ 만일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장 먼저 짜장면을 먹으려 가겠다. “아버지, 얼마나 짜장면이 드시고 싶으셨어요. 오늘 곱배기로 드세요” 하고, 아버지는 어쩌면 천국에서도 가끔 짜장면을 드시고 계실 것이다.

시 한 편을 읽고 나면 시인이 이 작품을 지을 때 들었던 생각, 영감을 줬던 경험 등 시작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이어 만날 수 있다.

그의 인생이 시가 되어 맺혔듯 모두의 인생이 한 편의 시라는 시인의 메시지는 읽는 이들에게 가슴 먹먹한 위로를 전달한다. 역할을 나누어 치열하게 살아온 인간 정호승과 시인 정호승이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인간적인 성숙과 나이 듦의 성찰까지 만날 수 있는 것 역시 이 책만이 갖는 묘미일 것이다.

출처 : [이모작뉴스\(http://www.emozak.co.kr\)](http://www.emozak.co.kr)

작품 소개

풍경 달다

정호승

운주사 와불님을 뵈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 사랑하는 임을 풍경에, 자신의 마음을 바람에 비유하여 쓴 감각적인 서정시이다.

정호승 시인은 전라남도 화순 운주사에 있는 와불을 시의 첫머리에 끌어들이 호기심과 주제를 향한 시의 문을 엽니다. 와불은 누워있는 불상인데, 좌불이나 입상의 불상과는 또 다른 특이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누워있다는 것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체된 어떤 존재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사랑하는 '그대 가슴의 처마 끝/풍경을 달고 돌아왔다'라는 구절에 연관시킨다면 바로 고요하거나 조용한 그대의 마음을 일깨워 요동치게 하고 싶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경'은 그대의 마음을 일깨우는 도구이며, '풍경 소리'는 화자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가지는 큰 매력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멀리 있어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하기 위해 바람으로 달려가 그대 가슴에 달아 놓은 풍경을 울리고, 그 소리에 또 '그대' 마음을 울리는 것을 상상하게끔 하는 점에 있습니다. 즉 시를 읽고 있으면 재빨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풍경을 단 이유를 알게 되고 그 풍경 소리가 나에게서 나온 '그대'에 대한 그리움의 다른 이름임을 알게 됩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시어들의 어울림. 쉬운 시어들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 간단명료하지만 생략과 상상의 이미지를 처마 끝으로 피어 올리는 한 폭의 그림. 읽고 난 뒤에도 그 풍경소리가 쉽게 잠들지 않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전종대, 시인>

<http://www.ksinews.co.kr/content.html?md=0075&seq=31937>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다른작품 소개

뫼비우스 가지 꺾어

홍량

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내드리웁니다,
님께서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 두고 보시옵소서.
밤비에 새잎이 돋아나거든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겨 주옵소서.

작가의 작품세계

<인터뷰 자료, 2020.10월 출간 기념간담회>

사람은 외롭게 태어나고 외롭게 죽어간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 본질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데 이 책이 도움됐으면 한다. 그래서 외로워도 외롭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인간인 나에게 죽음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리 존재성 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외로움을 이해하고 긍정하지 않으면 더 큰 절망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로움에 대한 태도가 절망적이면 삶 자체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본질의 가치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간은 다 나름대로 깨달음의 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구도자이고 수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작가 종교관

산문집으로 ‘소년부처’ 등 불교적 소재를 가지고 좋은 시를 많이 쓴 시인은 자신의 삶이 가장 불교의 정서와 사유에 가깝다고 고백하였다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35>) 김현중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회원 선정 시편

- 윤현아 : 술한잔(183쪽)
- 김선희 : 부치지 않은 편지 (45쪽)
- 정종모 : 수선화에게 (23쪽)
- 최은서 : 봄길 (229쪽)
- 이기상 : 풍경달다(209쪽)

토론 주제

1. 가장 인상 깊은 시 한편을 선정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2. 정호승 작가의 종교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3. '술 한잔'(183쪽)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지나간 인생을 말한다면
4.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있다면

2021.6월

- 도서명 : 마션
- 일 시 : 2021. 6. 8.(화)
- 저 자 : 앤디 위어
- 주재자 : 윤현아

저자소개: 앤디 위어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 입자물리학자인 아버지와 전기기술자인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으며, 여덟 살 때부터 아서 C. 클라크, 아이작 아시모프 등의 작품을 탐독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다가, 열다섯 살 때 산디아 국립연구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블리자드에서 '워크래프트 2' 개발에 참여했고, AOL 등 몇몇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전전하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본격적으로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한 건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수년간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자신이 쓴 글을 포스팅해왔는데, 단편 <The Egg> 등도 인터넷상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유튜브 동영상, 단막극 등으로 만들어졌다. 2009년 첫 장편 《마션》을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다가, 2011년 독자들의 요청으로 전자책 자비 출판을 했고, 2014년 크라운 출판사와 정식 판권 계약을 맺고 종이책으로 출간하였다. 데뷔작 《마션》의 출간 성공으로 한참 인기 작가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있는 앤디 위어는 현재 외계인, 텔레파시, 시간여행 등을 소재로 한 차기작 《Zhek》을 집필 중이다. - 리디북스 -

요약

헤르메스호라는 우주왕복선을 타고 화성의 아키달리아평원에 도착한 아레스3대원들이 있다. 6명의 대원들은 나사의 화성 탐사 일정에 따라 화성에 건설된 기지에서 한 달간 생활을 하며 생물경작 가능성 및 생명 유지 가능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6화성일째 거대한 모래폭풍으로 안테나가 부서지고 와트니가 실종되어 찾아보지 못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폭풍으로 인해 다른 대원들마저 위험한 상황. 와트니의 생명유지장치가 오프라인 되어있어 사망했다고 판단해 화성을 떠나게 되고, 나사에서도 마크 사망을 발표한다.

폭풍이 지나간 후 마크는 슈트에 피가 응고되어 살 수 있었고, 부서진 안테나 파편 제거에 성공하고 앞으로 화성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한다. 남은 식량은 300일가량 버틸 수 있는 상황, 다음 탐사대는 4년후에나 도착 예정인 난감한 현실에, 진공포장된 감자를 발견한다.

뛰어난 식물학자인 그는 거름으로 쓸 인분을 수거하고 주방의 흙을 채워 밭으로 만든다. 화성 최초 감자농사가 시작되지만 이곳엔 물이 없다. 또한 이곳에 물건은 모두 방염재질. 실험을 통해 물방울을 만들고 감자의 싹을 틔우는데 성공한다.

지구에서는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으나 위성사진을 통해 마크가 생존한걸 알게 된다. 나사와 연락할 방법을 찾던 와트니는 오래전에 묻어 두었던 패스파인더를 찾아 16진법과 아스키코드 등을 사용해 텍스트 메시지를 통한 대화에 성공한다.

나사에서는 와트니의 생존을 아레스 3팀에게 두달 넘게 숨겨왔으나, 결국 와트니의 생존 사실을 알리고, 팀원들은 와트니와 연락을 하게 된다. 나사에서는 와트니에게 생존에 필요한 보급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계획에 착수한다.

화성생활이 안정화되어가던 어느 날, 에어락 연결부가 터져 기압차로 인해 에어락 기지 한 면이 폭발한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기압이 떨어지면서 물은 증발했고 대기의 노출과 영하의 기온에 죽어버린 감자와 박테리아 등. 보급선의 납기 또한 단축된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비닐로 에어락을 치는 마크. 불안한 기지와 식량도 여의치 않다. 며칠 후 발사되는 보급선. 하지만 촉박한 납기로 공중에서 산산히 부서진다.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이 위성발사체 태양신호를 지원하고 나사의 한 역학자는 획기적인 가설을 만든다. 귀환 중이던 아레스 3팀이 탑승한 우주선 헤르메스를 가속시켜 지구 궤도를 스윙바이로 돌면서 보급선과 도킹하여 다시 화성으로 보낸 다음, 와트니를 미리 착륙시킨 아레스 3의 MAX에 태우고 헤르메스와 랑데부를 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헤르메스호의 임무기간은 533일 늘어나며, 헤르메스의 항로를 바꾸는 것과 랑데부 성공여부, 지구 중력 가속 비행의 실패 등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 등등 헤르메스호의 선원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샌더스 국장은 반대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헤르메스호에 전달되어 헤르메스의 선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와트니를 구출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계획을 진행한다.

지구 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보급선은 헤르메스호와 도킹에 성공한다. 449화성일 와트니는 마침내 아레스3 기지를 떠난다. 4시간 이동 13시간 로버를 충전하며 거대한 모래폭풍을 피해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아레스4의 MAV에 도착한다. 헤르메스는 화성궤도에 진입을 못하기에 높은 고도에 있는 헤르메스호와 랑데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선의 무게를 줄여서 헤르메스와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상황. 나사에 의견대로 불필요한 무게를 모두 줄인다. 드디어 D day 와트니가 탑승한 MAV는 마침내 이륙한다.

이륙과정에서 강한 가속도 때문에 와트니는 기절하고 헤르메스호는 예상보다 먼 와트니와 거리를 줄이기 위해 폭탄을 설치하여 에어락을 터트리고, 베크가 EVA장비를 걸치고 우주선과 줄로 연결한 뒤 와트니에게 다가가 줄을 잡게하여 구출에 성공한다. 지구에서도 하나가 되어 마크를 응원한다.

토론 주제

1.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별점과 읽은 소감)
2. 549 화성일 동안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나?
3. 와트니 생존을 위해 아레스3호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계획을감행한다.결국은성공했지만,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희생은 합리적이었나?
4. 화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을까?
5. 우주를 향한 인간의 도전은(우주개발) 바람직한가?
(기아, 전쟁, 코로나 같은 전염병 등 지구에서 해결해야할 과제 vs 우주를 향한 거액의 예산투자 등등을 고민해보기)

2021.7월

- 토론일 : 2021.7.13
- 도서명 :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 작가/옮긴이 : 사사키 아타루/송태욱
- 출판사항 : 자음과 모음/2012. 5. 18일/287쪽
- 주재자 : 김선희 회원

작가연구

1973년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문학부 사상문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계 기초문화연구를 전공해 종교학 종교사학 전문분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박사(문학). 현재 호세이대학 비상근 강사이며, 전공은 현대사상과 이론종교학이다. 지은 책으로 『야전과 영원 - 푸코 · 라캉 · 르장드르』 (以文社, 2008년, 정본문고판 상, 하 / 河出書房新社, 2011년)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 책과 혁명에 관한 닷새 밤의 기록』 (河出書房新社, 2010년) 『구하 전야』 (河出書房新社, 2011년) 『발걸음을 멈추고 - 아날렉타 1』 (河出書房新社, 2011년) 『이 나날들을 서로 노래한다 - 아날렉타 2』 (河出書房新社, 2011년) 『행복했을 적에 그랬던 것처럼』 (河出書房新社, 2011년) 『바스러진 대지에 하나의 장소를 - 아날렉타 3』 (河出書房新社, 2011년) 『BACK 2 BACK』 (공저, 河出書房新社, 2012년) 『아키코 그대의 제 문제』 (河出書房新社, 2012년)가 있다.

이 책의 사회적 평가

읽어라, 그것이 혁명이다 --사사키 아타루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그의 글은 거침없다. 파격적이다. 읽을수록 낮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갑자기 일본 지성계에 등장하더니 곧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게 된 사사키 아타루.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는 혼자서 치열하게 동서양 고전들을 탐독하고 스스로 무지함을 깨우쳤다. 그의 글을 읽기 위해서는, 마치 놀이공원의 고난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긴장과 안도를 반복해야만 한다.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송태욱 옮김) 외에도 <야전과 영원>(안천 옮김), <이 치열한 무력을>(안천 옮김) 등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읽는 맛이 제대로인 책은 역시 대표작이면서 ‘혁명으로서의 책 읽기’를 주제로 한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다.

이 책은 지금의 치열한 무력의 시대에, 압도적인 현실에 짓눌린 억압의 시대에, 왜 손에 책을 집어 들어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사사키 아타루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두 손을 모아 신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 두 손으로 책을 들어 읽고 또 읽고, 고쳐 읽고 다시 고쳐 쓰는 행위 자체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주장한다.

요즘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책을 읽으라니, 답답한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사키에 의하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책을 읽어야만 한다. “질 들뢰즈의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자체가 타락한 것이다’라는. 하이데거도 정보란 명령이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명령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명령을 모으는 일입니다.”

언제나 긴장한 채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누군가의 부하에게, 또는 미디어의 익명성 아래에 감추어진 그 누구도 아닌 누군가의 부하로서 희희낙락하며 영락해가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문장 아닌가! 최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던지는 ‘명령’에 순응해가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책을 읽는 행위가 위대한 이유는 그 자체가 혁명이고 또한 혁명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 무함마드, 니체, 도스토옙스키, 프로이트, 라캉, 버지니아 울프 등이 그랬다. 사사키는 ‘책읽기의 혁명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마르틴 루터를 소환한다. 마르틴 루터의 혁명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었다. 루터가 한 일은 성서를 읽고 번역하고 수없이 많은 책을 쓴 것이다. 세계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루터는 세계의 근거이자 준거인 텍스트, 성서를 읽었다.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세계의 질서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게다가 그 질서는 완전히 썩어있었다. 준거가 되는 성서에는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들의 명령이나 질서를 따라야만 한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항의해 독일 비텐베르크성 교회에 그 유명한 95개의 반박문, 의견서를 내붙이고 교황 세력과 대결해 새로운 세계를 연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하지만 지독할 정도로 읽고 썼던 루터의 행위가 당시 인쇄 출판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16세기 초까지 독일어 서적 간행 종수는 단 40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등장하자마자 1523년에는 498종에 이릅니다. 그중 418종은 루터와 그의 적대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1519년 루터 책의 출판 부수는 독일 전체 출판물의 3분의 1, 1523년에는 5분의 2에 달했습니다. 좀 더 넓게 잡아도 1500년부터 1540년까지 독일의 전체 서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느라 힘겹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세상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자. 추악한 권력형 비리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대형 인재사고는 물론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남북간에도 화해가 아니라 첨예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의무이자 도리일 텐데, 오히려 그들이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떠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우리들은 그저 침묵한 채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책을 읽지 않아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이자 준거인 텍스트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책 읽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 이 엄중한 진리를 증명해주고 있다.

책 속 토론

말라메르는 어떻게 답장을 썼을까요?

“유일한 참된 충고자, 고독이 하는 말을 듣도록.”이라고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도 듣지 말라는 예깁니다. 누구의 ‘부하’도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명령’도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17-

정보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보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옳은지 어떤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대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시달립니다. 정보가 말해주는 대로 행동하면 그 질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정보를 모으고 무엇보다 먼저 정보통이 되려고 합니다. 게다가 정보를 무시하는 척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

짐 들뢰즈의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타락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자체가 타락한 것이다.”라는. 하이데거도 ‘정보’란 ‘명령이란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명령을 듣지 못하는게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명령을 모으는 일입니다. 언제나 긴장한 채 멸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22-

왜냐하면 정신분석가 자크 라캉이 말하는 것처럼 거리에는 ‘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캉 자신의 말을 비리자면 가장 ‘비참한 향락인’ 팔루스적 ‘향락이 말이지요. 다시 말해 자신을 하나의 ‘우뚝 솟은 전체’의 모습으로 제시하려는 향락입니다. 전문가는 모두 결국 자신을 ‘완벽한 전체성’을 가지 ‘우뚝 솟은 만능인’으로서 내세우려고 합니다.-23-

현재를 쫓는 자는 언젠가 현재에 따라잡힌다. 여러분은 늘 귀를 기울이며 늘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으므로 진정한 생산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설사 여러분이 아무리 큰일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회임의 깊은 과묵은 결코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는다.-29-

왜 우리가 이토록 정보의 틈새에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통치하는 텍스트라는 것이 무미건조한 정보이자 서류인 어느 시공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105-

버지아나 울프는 단언한다

최후에도 고독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 책에 다가가는 도중에 아무리 꼬불꼬불 구부러지고 빈둥빈둥하고 우물쭈물하고 어슬렁어슬렁하더라도 최후에는 고독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끝에 어떤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전에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일이다. 최후에는 고독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일입니다.-49-

읽고 또 쓰는 그 한 행 한 행에 어렵פות이 자신의 생사를 걸고 있는 것이니까요.-51-

하지만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독서 자체가 즐거워서 독서를 하는 즐거움은 세상에 없는 것일까요? 목적 자체인 즐거움이라는 건 없는 것일까요? 독서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적어도 나는 때로 다음과 같은 꿈을 꾸니다 -52-

문학이야말로 혁명의 본질입니다. 혁명은 문학으로부터만 일어나고 문학을 읽어버린 순간 혁명은 죽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문학을 폄하하고 문학부를 대학에서 추방하려고 할까요? 왜 문학자 스스로가 문학을 이렇게까지 업신여길까요? 그것은 바로 문학이 혁명의 잠재력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105-

•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문학이라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56-

•

루터 문학자이기에 혁명가 -

읽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정보를 둘러싼 착취의 구도를 파괴하고 모든 분야에 걸친 답답한 닫힌 영역을 돌파하여 현 상황을 추인하는 조치를 거절한 끝에 인류사적 규모의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원가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가, 그것은 혁명입니다. 우리는 혁명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관되게 논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63-

•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이다

한마디로 하지요.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70-

•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면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81-

•

작가 고토 메이세이가 “ 왜 소설을 쓰는가?” 라고 자문하고는 “소설을 읽어버렸으니까.”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 사람 특유의 넉살 좋고 이상한 느낌으로 답했습니다. 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는 것입니다.-97-

•

무함마드는 읽으라는 말을 듣고 읽었고, 쓰라는 말을 듣고 썼으며 그리고 시를 읊은 것이었니 말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문학이야말로 혁명의 힘이고, 혁명은 문학으로부터만 일어납니다. 읽고 쓰고 노래하는 것, 혁명은 거계에서만 일어납니다-139-

-무함마드는 시를 무척 좋아하여 [코란]에도 “ 시의 언어는 황금보다 훌륭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이샤는 모든 아랍 시를 암기하고 있어 “ 그것 좀 해주게”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술술 읊었고 또 자신도 시를 쓰고 연설까지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

중세 해석자 혁명은 ‘혁명의 본체’를 드러낸 혁명입니다. 다시 말해 법학자의 텍스트 고쳐 쓰기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척 답답하고 전혀 극적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학자, 법학자가 밤낮으로 홀로 책장을 넘기고 사전을 찾고 판례를 조사하여 법문을 고쳐 씁니다. 정말 수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담하고 수수한 작업에서 엄청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기차게 이어지는 작업 자체가 바로 혁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세기 혁명의 위대함이니까요 -194-

-13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라틴어 번역본이 타당하겠지요. 거기에서 1세기 파도바에서 태어난 마르실리우스가 나오고 15세기부터 16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 그리스 철학의 원전에서 흡수하는 일이 생기고 16세기 마키아벨리가 나오고 그로티우스, 홉스, 루소로 이어지는데 이른바 칸트를 그 극점으로 하는 근대 자연법 이론이나 사회계약론의 꽃들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근대 정치 사상, 근대 법철학 이론은 좀 더 전부터 다듬어져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2세기에 정치를 둘러싼 사고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통치할 거의 모든 방법이 이미 중세 해석자 혁명에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12세기 해석자 혁명의 혁명가들이 최초로 한 일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로서 법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201-

-르장드르는 분명히 말하고 이라고 썼습니다 “ 정보이론조차도 중세 해석자 혁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말이지요. 중세 해석자 혁명은 무엇이 ‘텍스트’ 인지를 정의하는 혁명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급소를 장악하는 텍스트인지 그것을 고쳐 쓰고 다시 정의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중세 해석자 혁명은 모든 혁명의 어머니인, 비할 데 없는 혁명이었던 것입니다.-207-

‘모든 것’은 정보거나 그렇지 않은 폭력이 된다. 중세 해석자 혁명이 행동한 그것은 ‘통치의 정보화’입니다. ‘모든 것’은 정보가 됩니다. 그런 조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조작의 이물로서 한데 묶여 나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이물로서의 한데 묶여 나오기 때문에 역으로 그 정보와 폭력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결탁해 있습니다. 요컨대 통치의 정보화와 폭력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됩니다.-208-

●

자신의 신체에 법과 신화를 걸친 그들의 행동거지, 힘껏 내뱉는 행보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심신에 새기게 한 규칙, 시, 문장을 소리 내고, 흔들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창의를 덧붙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액세서리의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고, 리듬을 개량하고, 춤의 안무를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하면 바로 읽고, 고쳐 읽고, 쓰고 고쳐 쓰는 ‘문학’ 행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춤’은 그대로 그들에게 법적, 규범적, 철학적, 문학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고하고, 그들은 읽고,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203-

-모리스 블랑쇼가 ‘독서란 墓石과의 열광적인 춤이다’라고 말했는데 독서란 춤이고 사람은 법과 춤춥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몸에 두르고 있는 모든 것, 호흡법이나 발성법, 옷이나 장시공이나 소리나 리듬이나 노래, 춤의 안무는 그 자체가 법전이고 성전이며 신화이고 시인 것입니다.

모리스 블랑쇼 -프랑스의 작가, 철학자, 문학이론가.

블랑쇼는 평생을 운둔하며 살아갔으며, 그의 사진은 레비나스를 비롯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 몇 장과 80년대 파파라치가 멀리서 찍은 사진 등 얼마 남아있지 않을 정도다.

질 들뢰즈,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장 퉁-낭시와 같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신앙이 사라진다. 읽기 그리고 쓰는 끝나지 않은 시공

읽는다는 것은 고쳐 읽는 것입니다. 즉 고쳐 쓰는 것,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표한 사태가 떠오릅니다. 읽는다는 것에서 ‘믿는다는 것’이 어디까지고 읽는다는 것은 용해되어간다는 것임을 몇 번이나 묘사했습니다. 책을 제대로 이끄러는다는 것은 읽고 있는 자신과 세계가 동시에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신앙’은 사라집니다. 그 한 행을 믿지 않는다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은 지우고 고쳐 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지우고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은 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지 않는 고쳐 쓸 수 없지만,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16-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습습니다 “최후에는 고독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16-

●

당신은 행해진다. 어떤 때라도!

당신은 뭔가를 하고 그것이 의미를 이루는 것이 아닐다. 당신은 ‘행해지는 것’이다. “당신은 행해진다! 어떤 때라도라고 노래하듯이 그는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생성의 일부이고 그 ‘의미인’것입니다. 이 방대한 우주의 생성 안에서 이리하여 우리가 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아내가는 것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268-

●

2021.9월

- 일시 : 2021.9.14
- 장소 : 줌
- 도서 : 기분이 없는 기분
- 저자 : 창비
- 주재 : 최옥연

토론주제

1. 어릴적 생각하는 부모상과 지금의 자식에 대한 생각 중 공감되는 것이 있나요?
2. 효진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한 감정은 무엇 일까요?
3. 효진이 항우울제 처방으로 병을 극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나요?
4. 기분이 없는 기분을 느껴 본 적이 있는지요?
5. 고독사에 대한 생각은?

2021.10월

- 도서명 : 달라구트의 꿈의 백화점
- 작 가 : 이미예
- 일 시 : 2021. 10.12
- 주재자 : 최은서

토론주제

1. 꿈을 살 수 있다면 어떤 꿈을 사고 싶으신지요?
2. 내가 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꿈을 만들어 팔고 싶으신지요?
3. 살면서 꾸 꿈 중에 제일 행복했던 꿈은?
4. 악몽이 현실에서 도움이 된 적 있나요?
5. 일부러 좋은 꿈 꾸려고 시도한 적 있나요?
6. 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7. 이 책이 많이 읽히는 이유는?

2021.11월

- 일 시: 2020. 11. 9.
- 도서명: 아버지에게 갔었어
- 지은이: 신 경 속
- 주재자: 윤 인 자

작가소개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5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중편 「겨울 우화」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래 소설집 『겨울 우화』, 『퐁금이 있던 자리』, 『오래전 집을 떠날 때』, 『딸기밭』, 『종소리』 『모르는 여인들』, 장편소설 『깊은 슬픔』, 『외딴방』, 『기차는 7시에 떠나네』, 『바이올렛』, 『리진』, 『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짧은 소설집 『J이야기』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산문집 『아름다운 그늘』 『자거라, 네 슬픔아』와 한일 양국을 오간 왕복 서간집 『산이 있는 집 우물이 있는 집』 등을 펴냈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을 비롯해 41개국에 번역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들이 영미권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에 출판되었다.

국내에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일보문학상,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오영수문학상, 호암상 등을 받았으며, 『외딴방』이 프랑스의 비평가와 문학기자가 선정하는 '리나페르쉬 상'을, 『엄마를 부탁해』가 한국문학 최초로 '맨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작 『아버지에게 갔었어』는 그의 여덟번째 장편소설이다.

책소개

단행본으로는 8년 만이고 장편으로는 11년 만에 출간하는, 작가의 여덟번째 장편소설이다.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거진 창비'에서 연재한 작품이다.

이번 소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실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라는 한 사람에게 가닿게 되는 과정을 절절하게 그려낸 이야기로, 소설가 신경속의 작가적 인생을 한 차원 새롭게 여는 작품이기도 하다.

오래도록 소설을 써온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삶과 세상에 대한 무르익은 통찰과 철학, 그리고 가족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된 깊은 사유를 응축해내면서 가족의 나이 듦을 처음 바라보게 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시리고도 찬란하게 펼쳐놓는다.

줄거리

엄마가 입원하자 J시 집에 홀로 남게 된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 '나'가 5년 만에 기차에 오르며 시작된다. 눈앞에 펼쳐질 듯 생생한 묘사로 그려진 J시와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의 지나온 삶이 겹쳐지며, 순식간에 '나'는 아버지의 삶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아왔으며 “젊은 날에 당신의 새끼들인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보면 무서웠”지만 그것이 도리어 살아갈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면 으레 떠오르기 마련인 가부장적인 억압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인물이다. '아버지' 인물의 생생함은 그가 가진 서사의 리얼리티로도 드러난다.

한국전쟁부터, 돈을 벌기 위해 갔던 서울에서 목도한 4·19혁명, 자식 여섯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소 값이 폭락하자 그 소를 타고 참여했던 80년대 소몰이 시위까지, 역사를 개인의 관점에서 그려내기도 한다. 또 한명의 아버지인 '큰오빠'가 겪은 80~90년대 중동 이주노동,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이제는 치킨 두마리도 마음 놓고 시키지 못해 미안해하는 조카 등은 아버지-아들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여러겹의 아버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편 '나'는 몇년 전 사고로 딸을 잃는 상실을 겪었다. 아버지가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전해 들었음에도 그동안 마음을 쓰지 않았던 '나'는 그 뼈아픈 상실을 계기로 비로소 아버지의 고통과 대면하며 "아버지를 한번도 개별적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그러면서 둘째 오빠와 엄마,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겪어낸 '박무릉' 등 다른 인물의 목소리를 빌려 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아버지와 그를 둘러싼 가족의 삶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토론

1.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2. 아버지란? 가족이란?
3. 내 기억속의 나의 아버지는?
4. 표절에 관대한 한국 사람들?

2부 글쓰기 특강

특강 개요

- 기 간 : 2021.8.17~9.28 (1일 2시간 5회, 매주 화요일)
- 일 정 : 8.17, 8.24, 8.31, 9.7, 9.28
- 시 간 : 20:00 ~22:00
- 방 법 : 줌(비대면 강의)
- 강 사 : 류 성 신

강사 소개

- 63년 7월 14일생
- seongsin714@hanmail.net
-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50. 419동 706호(금촌동, 후곡마을)
- 경기대학교 한류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시조창작 전공 석사 졸업
- 경력
 - 2011: 수필등단(문파문학)
 - 2019 시조시학 봄호 신인상
 - 2017년 전국시조공모 대상(시로 읽는 한국역사 100년)
 - 제10회 전국가람시조백일장 장원(2018)
 - 2016년 경기예술인 대상 외 다수
- 저서 : 시조집 『비를 굽다』

강의 계획

수업일시	강 의 내 용	수 업 방 법
제1강	시조-시조의 의미와 형식 수필-참신한 착상, 글감의 포착,	관련 작품 분석 및 합평 2021년 신춘문예작품 감상
제2강	시조_세계관과 주제의식 수필-주제는 양면성을 지녀야 한다 (주제 설정 방법, 보편성과 특수성)	관련 작품 분석 및 합평 2021년 신춘문예작품 감상
제3강	시조 - 현대적 표현법 1 수필 -구성전략을 세우기	관련 작품 분석 및 합평 2021년 신춘문예작품 감상
제4강	시조 - 현대적 표현법 2 수필 - 문체 및 시제 운용의 기교	관련 작품 분석 및 합평 2021년 신춘문예작품 감상
제5강	시조 - 표현의 이해 수필 - 시점변형 및 형식의 다양성. 마무리	관련 작품 분석 및 합평 2021년 신춘문예작품 감상

관련사진



3부 우리의 창작

윤인자 작품집

풍경이 울었다

바람이 울었다. 수컷이 그가 왔다.
언제나 그랬듯이 눈빛만 오고가다
술잔을 올리고서야
가볍게 인사한다.

대문옆에 걸어둔 풍경을 울리며
일년에 꼭 두번 제시간에 그가온다
설날과 팔월 한가위
제사밥을 먹으러

등배에 언제부터가 제사상이 차려지고
지방을 붙이고 향불을 피우면
짚그랑 하얀 증소리
초콜릿을 올린다

술잔이 비워지고 햇살이 스며든다
곧추 선 초 심지에 꽃잎을 만들고는
갈때는 홀연히 간다

최옥연 작품집

파도

손편지
내어밀며
수줍게
다가와서

짠 내 가득
풍기며
배시시
눈인사 하면

바위섬
이끼처럼
품안에
꽃잠자네

그리운 얼굴들

산천이 여러 번 바뀌어도
늘 한결같은 얼굴 웃음
책속에 무르익은 따듯한 온기
안개꽃처럼 퍼져간다

깊은 산골짜기 샘솟는 물처럼
섬 없이 솟아 오른 생각들
곳곳에 퍼져나가 스며드는
아름답고 귀한님들의 마음

두레박 물을 받아 마시며
생각이 맑고 명쾌해지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받아
땅을 딛고 서있는 두발에 힘이..

재 회

다 두고 혼자 가는 거야
그곳에서 다소곳이
잊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함께 만나는 거야

눈부시게 하얀 겨울처럼
두 눈 깜빡이지도 말고
흰머리 곱게 빗어 넘기고
깨끗하고 단정한 매무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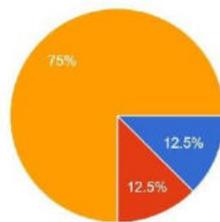
그립다 말하지 않아도
두 팔 벌려 쓸어 안아주고
차가운 체온도 함께하며
실타래 같은 이야기를 풀어
가는 세월 잡아 얹히고
그리움을 녹여 가며
마음껏 울어 보고
못 다한 어리광도 실컷 부려 보는거야

4부 북티즌 발전방향 설문 결과

2022 새 북티즌 지향 설문조사 결과

1. 나에게 북티즌은 어떤 성격의 모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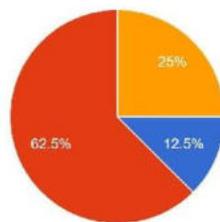
응답 8개



- 독서토론 모임의 성격이 강하다
- 친목 모임의 성격이 강하다
- 독서토론과 친목모임 성격이 모두 포함된다

2. 북티즌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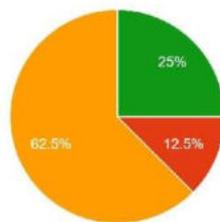
응답 8개



- 책을 통한 지적 충족
- 책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원형
- 사람들과 독서토론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짐

3. 한 권의 도서를 토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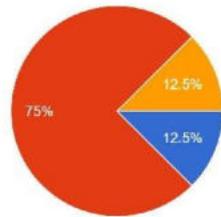
응답 8개



- 1시간
- 1시간 ~ 1시간 30분
- 1시간 30분 ~ 2시간
- 2시간 ~ 2시간 30분

4. 토론 논제는 몇 개가 적당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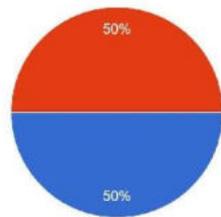
응답 8개



- 3~4개
- 5~6개
- 7~8개
- 9개 이상

5. 독서토론 진행시 찬반논제가 필요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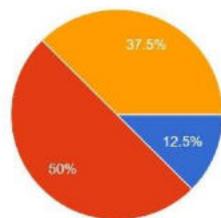
응답 8개



- 예
-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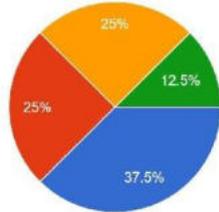
6. 독서토론 후 내가 느끼는 만족도는?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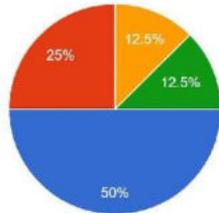
- 충분하다
- 어느 정도 충분하다
- 약간 부족하다
- 매우 부족하다

7. 주재자가 좀 더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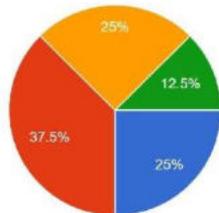
- 토론진행
- 토론자료
- 토론도시의 압박산 이하
- 각자의 성향이 있음으로 준비한 모놀자로는 존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8. 북티즌토론회는 누구나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 오픈되기를 바란다?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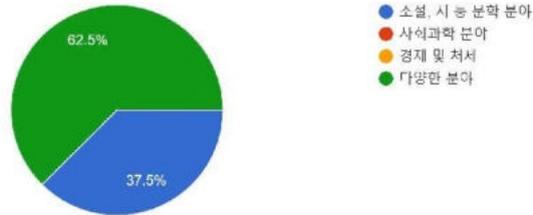
- 찬성
- 반대
- 준비되어 난만한 모임으로 실행될 때
- 회원의 추천을 통해 참여

9. 북티즌토론회의 적절한 회원 수는?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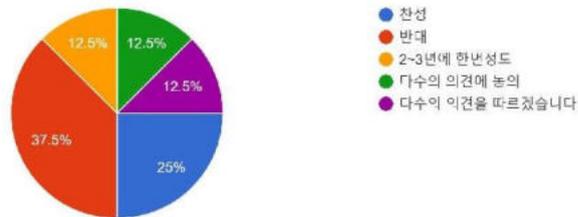


- 10명 이하
- 10 ~ 15명
- 16 ~ 20명
- 2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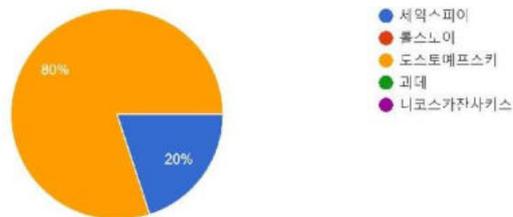
10. 북티즌토론회가 2022년도 중점을 두어야 하는 토론 도서는?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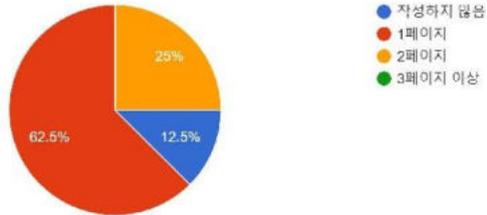
11. 1년에 6개월 가량을 전작(全作)주의 책 읽기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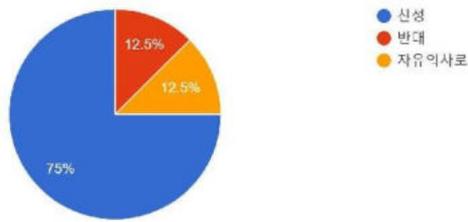
12. 만약 전작(全作)주의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어떤 작가를 먼저 하고 싶은가요?
 응답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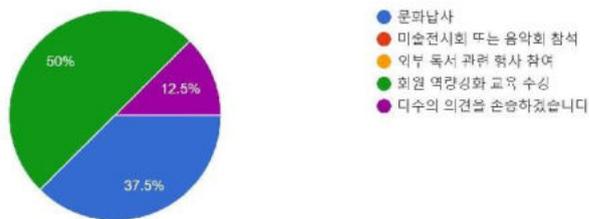
13. 매월 토론회 개최 후 토론소감문을 작성한다면,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4 기준)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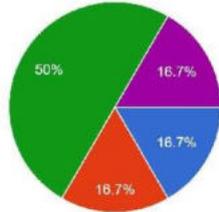
14. 매월 토론회 책으로 원고지 5페이지에 좋은 문장을 옮기는 것을 필수로 한다면? (원고지 분량은 토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응답 8개



15. 2022년에 북티즌토론회에서 특별히 활동할 사업이 있다면?
 응답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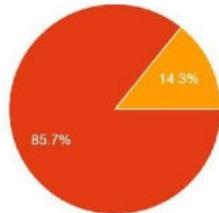


16. 북티즌토론회에서 대의적으로 추진할 사업 분야는?
 응답 6개



- 복서진흥 외부 활동
- 분수이웃돕기 등 사회 활동
- 플레이북 협동조합을 이용한 수익사업
- 시가상조
- 제대로 찬식을 못해 의견내기기 부끄럽습니다

17. 1년에 공모 사업은 몇 개가 적당할까요?
 응답 7개



- 0개
- 1개
- 2개
- 3개

18. 북티즌에서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개인적목표)
 응답 8개

- 다양한 분야의 책
- 책 잘읽고 폭넓은 사고
- 책임기의 계속
- 여러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생각의 폭을 넓혀서 이해력과 배려심을 좀더 키우고싶네요
- 지금정도로 만족
- 다양한 삶을 배우다
- 북티즌도서 빠지지 않고 제대로 읽기
- 한건의 책이라도 접할 수있어 감사할뿐입니다

19. 북티즌에서 다같이 이뤘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공동목표)

응답 7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활동

성숙한 인성도야. 실천력

모든회원의 두세작품 참여하에 도서 출간

한해를 돌아보며 개인의 글쓰기를 종합하여 매년 한권의 책을 만들어 보면 좋겠네요~!

토론포서 꼭 읽고 참여

문집만들기, 연간 20권 책읽기

사람이 아름다운 모임

20. 북티즌의 슬로건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으로 만들까요?

응답 8개

책 읽어 마을에 뿌리자

함께 하는 삶을 사랑하는 책모임

책을 통한 우리는 하나 언제까지 함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란 뜻이 들어가는 내용이면 좋겠네요

북티즌은 내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함께 한 책 함께 하는 인생

북티즌이여! 책과 함께 떠나자!

동행~~~

5부 북티즌 나눔책방 운영

나눔책방 운영

나눔책방은 2021.1.5일 '모인빌 공유책방'으로 시작했다가 2021.4.1일부터 북티즌 독서토론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티즌 나눔책방은 금촌 금정3길 12번지 위치하고 누구나 책교환이 쉽도록 외부에 설치된 책장에서 기증책을 1:1로 교환하고 있다. 나눔책방은 무인으로 운영하며 기증은 1층 주차장 기증 책장에 보관해야 하고 보유된 도서 중에 전집류와 교육용 참고서 등은 1:1 교환없이 가져 갈 수 있다.

기증 도서 접수 내역

- 2021. 1. 6. 미성측량 황명호 120권
- 2021. 1. 7. 김진태 14권
- 2021. 1. 8. 김영애 외 1명 17권
- 2021. 1.15. 황익수 소설 임꺽정 10권
- 2021. 1.29. 금성문외 1명 9권
- 2021. 2. 9. 김명준 120권
- 2021. 2.17. 최유나 19권
- 2021. 2.23. 최유나 10권
- 2021. 3. 1. 부로미 아파트 재활용 수거 22권
- 2021. 3. 5. 정의석 38권
- 2021. 3.10. 김명준 98권
- 2021. 3.19. 성삼수 142권
- 2021. 3.22. 이성철 9권
- 2021. 3.26. 익명 7권
- 2021. 4. 6. 인미정 72권
- 2021. 5. 1. 장준옥 70권
- 2021. 5.12. 최은서 54권
- 2021. 5.25. 신옥림 80권
- 2021. 9. 1. 백인자 50권
- 2021. 8.12. 차정만 27권
- 2021.10. 8. 이은숙 24권
- 2021.10. 8. 이진영 19권
-
- 2021.11. 5. 황인석 85권

2021년말 전체 **1,116권**

에필로그

-김선화-

2021년의 발자국을 들여다본다. 다사다난 했다는 말이 새삼스레 가까이 다가온다. 독서토론을 하며 만나 책과도 감정과 정서를 나누었고 회원들간의 입말도 색색이 달랐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들의 모임을 들었다냈다 했다.

‘판날레온과 특별봉사대(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통하여 문학의 진수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양식을 새롭게 알았다. ‘필경사 바틀비(허먼 멜빌);’를 통하여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바틀비의 택적 언어를 통하여 시대와 맞이하는 개인의 선택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융의 영혼의 지도(머니 스타인)’를 펼치며 페르소나와 마주하기도 했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정호승)’의 페이지를 넘기며 시인이 말해주는 시어를 이해하며 정호승씨에게 바짝 다가갔다. 2021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달려구트 꿈 백화점(이미예)’을 통해 젊은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치를 꿈과 연결시킨 작가의 창의적인 시선에 흠칫 놀라기도 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사사키 아타루)를 통하여 책에 대한 맹목성보다는 분석하고 조합하여 융합하는 독서력이 진정 우리에게 있는지도 성찰했다. 40여년을 토론해 오면서 읽고 또 읽으니 쓰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대 문인 류성신 선생님께 5회에 걸쳐 수필과 현대시조를 배우기도 했다. 이제 글쓰기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읽어낸 글과 행간 사이에서 나만의 언어를 발견하여 집어내는 일만 남은 듯 하다. 서로가 서로의 글동무가 되고 각자 자신 안에 심겨진 그것을 들고 꺼내들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꼈다. 낱말 하나하나를 찾아내 비즈퍼즐처럼 작품이 완성되길 바란다.

서로의 신뢰로 우리는 긴 시간을 교류하며 안위를 묻고 위로가 되었다. 시절이 묻는 관계로 ‘사람’에 대한 귀함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온 단어는 책과 북티즌이다. 일년 동안 귀한 시간을 함께 한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포근포근 눈이 많이 내린 날이다. 눈송이가 서로에게 스며 들 듯 시간의 덮개로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어 하얀 겨울빛으로 빛나는 날이다. 그 빛남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이다.

2022.1.19

|| 발행자 북티즌독서토론회
|| 발행일 2022.1.25일